

가게키요 관련 일화 고찰

- 「측근의 배신」 일화를 중심으로 -

김 미 옥*

(e-mail: mokim07@hanmail.net)

目 次

1. 서론
 2. 가타리혼 계(語り本系) 『헤이케 모노가타리』를 중심으로
 3. 요미혼 계(読み本系) 『헤이케 모노가타리』를 중심으로
 4. 『아즈마 가가미(吾妻鏡)』를 중심으로
 5. 결론
-

1. 서론(序論)

가게키요(景清)는 『헤이케 모노가타리(平家物語)』에서 헤이케 일개 무사로 기술되고 있지만, 이후 중세 극예술인 고와카마이교쿠(幸若舞曲) 『가게키요』를 통해서 헤이케 잔당(平家残党)의 집약체로서 등장하게 된다¹⁾.

가게키요가 헤이케 잔당의 집약 인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한 의문은, 이후 「가게키요」에 대한 많은 연구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일본에서의 연구는 민속학적 방법을 통한 연구와 『헤이케 모노가타리』를 통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²⁾. 그 중 『헤이케 모노가타리』를 통해서 가게키요가 헤이케 잔당의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강사, 일본고전문학 전공.

- 1) 向井芳樹 「幸若舞曲『景清』の論」 『近松の方法』(桜楓社, 1976) pp.195~216, 徳江元正 「乞丐景清—幸若舞曲と題目立—」 『文学46卷』(岩波書店, 1978.4) p.62~75, 砂川博 「幸若舞曲景清の前段階—南部の景清語り)の可能性—」 『幸若舞曲研究第三卷』(三弥井書店, 1975) p.66~87, 麻原美子 「舞の本『景清』考」 『幸若舞曲研究第九卷』(三弥井書店, 1996) pp.3~30, 北川忠彦 「景清像の成立」 『軍記物論考』(三弥井選書, 1989) pp.28~55, 星野貴志 「景清論—平家物語諸本が形成する景清像の考察—」 『成城国文学18号』(成城国文学会, 2002) pp.15~30 등이 있다.
- 2) 참고 「가게키요에 대한 일고찰-『헤이케 모노가타리』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 30집』(중앙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1.2) p.233

집약인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연구자 중 한 사람인 기타가와 다다히코(北川忠彦)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가쿠이치 본(覚一本) 『헤이케 모노가타리』에 나타난 일정한 무사 나열은 가게키요가 헤이케 잔당의 집약 인물로서 등장하기 위한 것이다3.’라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호시노 다카유키(星野貴志)는 ‘『헤이케 모노가타리』에 등장하는 헤이케의 잔당 이야기가 가게키요라고 혼동되는 일이 많은데, 이는 고정화되지 않은 헤이케 잔당의 이야기가 가게키요로 이어진 것이다4.’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헤이케 모노가타리』 전본(伝本) 중 「당도계(当道係)」인 가타리혼 계(語り物系)5)만 고찰하거나, 「당도계」인 가타리혼 계와 「비당도계(非当道係)」인 요미혼 계(読み本系)에서 보이는 일화를 통해서 가게키요로 혼동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줄자는 『헤이케 모노가타리』만을 통해서 가게키요를 헤이케 잔당의 집약체로서 상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가게키요가 헤이케 잔당의 집약체로 등장하게 되는 고와카마이 『가게키요』에 나타난 가게키요 관련 중심 일화들이 『헤이케 모노가타리』에서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고와카마이 『가게키요』에 나타난 구체적 일화를 살펴보면, 헤이케의 복수를 위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 이하 ‘요리토모’) 암살 시도, 측근 및 정인(情人)의 배신, 감옥 탈출(牢破り), 관음부처님 이생담6)(観音の身代り), 요리토모의 사면(源頼朝の赦免), 가게키요의 실명(景清の両眼抉り) 등이 있다. 이러한 일화들 중 요리토모의 암살 시도에 관한 일화에 대해서는 이미 줄고 「『헤이케 모노가타리』에 나타난 가게키요 관련 일화 고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암살 시도 일화를 중심으로-7)」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게키요와 관련된 다른 일화인 「측근 및 정인의 배신 일화8)」를 중심으로 『헤이케 모노가타리』 전본(伝本)에서 헤이케 잔당의 후일담

3) 北川忠彦 「景清像の成立」 『軍記物論考』(三弥井選書, 1989) pp.28~55

4) 星野貴志 「景清論—平家物語諸本が形成する景清像の考察—」 『成城国文学18号』(成城国文学会, 2002) pp.15~30

5) 가타리 혼계(語り本系)는 비파 법사(琵琶法師)가 헤이교쿠(平曲)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용한 텍스트로 가쿠이치 본(覚一本)과 루후 본(流布本)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요미혼 계(読み本系)와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

6) ‘観音の身代り’를 직역하면 ‘관음부처님 몸바꿈’이지만, 고와카마이교쿠(幸若舞曲) 『가게키요』에서 보면 위기에 처한 가게키요를 관음부처님이 몸을 바꿔 구하게 되는데, 본고에서는 이처럼 관음부처님이 몸을 바꿔 중생(衆生)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観音の身代り’를 ‘관음 이생담’으로 번역한다.

7) 줄고 「『헤이케 모노가타리』에 나타난 가게키요 관련 일화 고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암살 시도 일화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제 87집』(한국일본학회, 2011.5) pp.181~194

8) 가게키요는 고와카마이 『가게키요』, 조루리(浄瑠璃) 『가게키요』에서 정인(情人)인 아코오(あこお)의 밑고로, 신조루리 『출세 가게키요(出世景清)』에서는 정인 아코야(阿古屋)에 의해서 미나모토 가문(源氏)의 군사들에게 붙잡힌다. 이러한 내용은 가게키요를 주인공으로 하는 가게키요 모노(景清

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통틀어 「측근의 배신⁹⁾」이라 칭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헤이케 모노가타리¹⁰⁾』를 가타리혼 계와 요미혼 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다음은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역사서인 『아즈마가가미(吾妻鑑)¹¹⁾』를 중심으로 측근의 배신 일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가게키요가 헤이케 잔당의 집약체로서 등장하게 된 배경에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하며, 더 나아가 인물 가게키요에 대한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2. 가타리혼 계 『헤이케 모노가타리』를 중심으로

『헤이케 모노가타리』 「당도계 전본」인 가타리혼 계 중에서 측근의 배신 일화를 담고 있는 『헤이케 모노가타리』는 이치가타 류(一方流)인 가쿠이치 본(覚一本)¹²⁾, 요네자와 본(米沢本)¹³⁾과 야사카 류(八坂流)인 야사카 본(八坂本)¹⁴⁾, 하쿠니쥬쿠 혼(百二十句本)¹⁵⁾에서 볼 수 있다. 그 중 먼저 가쿠이치 본을 살펴보

物)의 중심내용이다.

- 9) 「측근의 배신」이란 용어는 졸자에 의한 것으로, ‘측근(側近)의 의미는 곁에서 가까이 모시는 사람과 어떤 사람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의미’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후자에 의미를 두고 용어를 사용하였다.
- 10) 『헤이케 모노가타리』 전본 중 조사 범위는 「당도계 전본」인 가타리혼 계 중 이치가타 류(一方流)인 『가쿠이치 본 헤이케 모노가타리』, 『요네자와 본(米沢本) 헤이케 모노가타리』, 『류후 본 헤이케 모노가타리』와 야사카 류(八坂流)인 『야사카 본(八坂本) 헤이케 모노가타리』, 『하쿠니쥬쿠 혼(百二十句本) 헤이케 모노가타리』이고, 「비당도계 전본」인 요미혼 계에서는 『엔교 본(延慶本) 헤이케 모노가타리』와 『나가토 본(長門本) 헤이케 모노가타리』, 『시부갓센조 본(四部合戦状本) 헤이케 모노가타리』, 『겐페이 조수이키(源平盛衰記)』, 『겐페이 토조로쿠(源平鬪諍録)』이다.
- 11) 『아즈마가가미』는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가마쿠라 막부 가신(家臣)에 의해서 편찬(編纂)된 역사서로서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를 연구하는 데 있어 기본 사료(史料)이다. 호조본(北条本) 총 52권으로, 그 중 45권은 결락(欠落)되어 있다. 1180년(治承4) 미나모토노 요리마사(源頼政)의 거병부터, 1266년(文永3)까지 87년간을 변체한문(變体漢文) 일기체로 기록하고 있다. 『아즈마가가미』는 『吾妻鏡』와 『東鑑』로 쓰이는데,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 사본(写本)에는 『吾妻鏡』, 에도 시대(江戸時代) 고활자본(古活字版) 표지에서 유래하여 『東鑑』라 표기에 기인한 것이다.
- 12) 수많은 전본을 지니고 있는 『헤이케 모노가타리』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읽혀지고 있다. 구성적인 면에서도, 문학적인 면에서도 높게 평가되고 있는 작품이다. 남북조 시대(南北朝時代) 비파법사(琵琶法師)의 조합(組合)이라 할 수 있는 「당도좌(当道座)」를 정비·확립한 아카시 가쿠이치(明石覚一)에 의해 1371년(応安四年) 만들어진 정본(正本)이다.
- 13) 무로마치 중기(室町中期) 사본으로 「葉子十行本」라고도 불린다. 가쿠이치 본과 류후 본(流布本)에 이르는 과도기 적인 성격을 지닌다.
- 14) 야사카 류(八坂流)는 헤이교쿠(平曲) 유파(流派)의 하나로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말기 교토(京都) 야사카(八坂)에 살고 있었던 비파법사(琵琶法師) 야사카 겐교(八坂檢校, 城玄)가 창시하였다. 이 시기는 야사카 류와 이치가타 류(一方流)로 세력이 양분되어 있다.
- 15) 야시로 본(屋代本)과 같은 계통으로 「단절 헤이케(断絶平家)」형으로 12권의 각권을 10장으로 나누는 것에서 하쿠니쥬쿠 혼이라고 부른다.

기로 한다. 가쿠이치 본 12권 「로쿠다이의 최후(六代被斬)」은 다른 가타리혼계 전본들과 비교해서 헤이케 잔당의 일화 중 측근의 배신 일화를 가장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다이라 가문의 무사 옛추노지로보에 모리쓰기는 다지마 국(但馬国, 현재 효고현)으로 몸을 피해 그곳에서 게히 미치히로(氣比道弘)의 사위로 살았다. 미치히로는 사위가 다이라 가문의 옛추노지로보에 모리쓰기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주머니 속에 든 송곳은 빠져나오는 법, 밤만 되면 장인의 말을 끌어내 타고 돌아다니고, 바다 속을 14~5정, 20정(1.5~2미터 정도)이나 잠수하며 돌아다니고 하였기에 지방수령(地頭守護)들이 이를 수상히 여기고 있었는데, 그 때 가마쿠라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가마쿠라 전하(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교서(教書)가 내려졌다. “다지마의 아사쿠라 다카키요여, 다이라 가문의 무사 옛추노지로보에 모리쓰기가 그곳에 머물고 있다고 하니 잡아들이도록 하라”하였다. 게히노 미치히로의 사위인 아사쿠라노 다카키요는 가마쿠라 전하의 명을 받들어 장인과 상의를 하는데 “(모리쓰기를) 어떻게 잡아들이어야 할까요?”라고 하자, “모리쓰기가 옥탕에 들어갔을 때 잡는 것이 좋을 것이요.”라고 한다. 모리쓰기가 목욕을 하러 들어가게 하고 힘센 장정 대여섯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모리쓰기를 붙잡으려고 했으나 붙잡으려 하면 넘어트리고, 던지고 일어나면 넘어뜨렸다. 아무래도 젖은 몸이라 붙잡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힘을 한 사람이 당할 수는 없는 법, 2~30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칼등과 장도의 자루로 내려쳐 붙잡아 생포된 모리쓰기는 그 즉시 간토(가마쿠라)로 보내졌다. 모리쓰기는 가마쿠라 전하(요리토모) 앞에 붙잡혀 심문을 받았다. “그런데, 너는 헤이케 무사 중에서도 다이라 가문의 친인척이라 들었는데 어찌 자결하지 않았느냐?”라고 요리토모가 말하니, 모리쓰기는 “그것은 다이라 가문이 너무나도 어이없게 무너져버려, 가마쿠라 전하의 목숨을 노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요. 잘 드는 대도와 예리한 화살도 가마쿠라 전하를 노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나, 이렇게 운이 다하고 말았으니 아무 쓸모가 없소.”라고 하였다. 요리토모 이를 듣고 “그 기개가 가상하구나. 이 요리토모를 섬길 의향이 있다면 죽이지 않고 가신으로 써주겠다. 어떤가?”라고 하니 모리쓰기는 “용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하니, 나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주었다가는 틀림없이 후회하실 것입니다. 하니 은혜를 베푸시어 어서 목을 치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요리토모가 “그렇다면 목을 베도록 하라”라고 명하자, (요리토모 부하들은) 모리쓰기를 유이노하마로 끌고 가서 목을 베었다. 이를 지켜본 사람치고 모리쓰기를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¹⁶⁾

16) 續家 平家の侍越中次郎兵衛盛嗣は但馬国へ落ち行きて、氣比四郎道弘が擧になつてぞゐたりける。道弘越中次郎兵衛とは知らざりけり。されども錐袋にたまらぬ風情にて、夜になればしうが馬引き出いて馳せ引きたり。海の底十四五町二十町潜りなどしければ、地頭守護怪しみけるほどに、なにとしてか漏れ聞えたりけん、

다만, 가쿠이치 본과 같은 이치가타 류인 요네자와 본(米沢本) 12권17)에서도 헤이케 잔당 후일담인 측근의 배신 일화를 볼 수 있는데, 가쿠이치 본과 구성면과 내용면,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 거의 일치하므로 원문만 실어 둔다. 내용을 살펴보면, 옛추노지로료에노조 모리쓰기(越中次郎兵衛尉盛嗣, 이하 ‘모리쓰기’)18)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 이하 ‘요리토모’)를 암살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만, 가마쿠라 막부의 교서를 받은 모리쓰기의 장인인 게히노 미치히

鎌倉殿御教書を下されけり。「但馬国住人朝倉太郎大夫高清。平家の侍越中次郎兵衛盛嗣、当国に居住の由きこしめす。めし進らせよ」と仰せ下さる。氣比四郎は朝倉の大夫が驕なりければ、呼び寄せて、「いかかして搦めんずる」と儀するに、「湯屋にてからむべし」とて、湯に入れて、したたかなる者五六人おろし合はせてからめんとするに、取つつけば投げ倒され、起き上れば蹴倒さる。たがひに身は濡れたり、取りもためず。されども衆力に強力かなはぬ事なれば、二三十人ばつと寄つて、太刀のみね長刀の柄にてうち悩まして搦め捕り、やがて関東へ参らせたりければ、御前に引つすゑさせて、事の子細を召し問はる。「いかに汝は同じ平家の侍といひながら、故親にてあんなるに、なにとて死なざりけるぞ」。「それはあまりに平家の脆く滅びてましまし候間、もしやとねらひ参らせ候ひつるなり。太刀の身のよきをも、征矢の尻の鉄よきをも、鎌倉殿の御ためとこそ拵へ持つて候ひつれども、これほどに運命尽きはて候ぬる上は、とかう申すにおよび候はず」。「志のほどはゆゆしかりけり。頼朝をたのまば助けて使はんは、いかに」と仰せければ、「勇士二主に仕へず。盛嗣ほどの者に御心許し給ひては、かならず御後悔候べし。ただ御恩にはとくとく顔を召され候へ」と申ければ、「さらば斬れ」とて、由井の浜に引き出して、斬つてげり。ほめぬ者こそなかりけれ。」佐々木八郎『平家物語評講(下)』(明治書院, 1963) pp.1575・1576

17) ‘平家の侍越中次郎兵衛盛嗣は但馬国へ落ち行きて、氣比四郎道弘が婿になつてぞむたりける。道弘、越中次郎兵衛とは知らざりけり。されども、鎌袋にたまらぬ風情にて、夜になればしうが馬引き出だいて馳せ引きしたり。海の底十四五町、二十町ぐりなどしければ、地頭、守護怪しみけるほどに、何としてか漏れ聞こえたりけん、鎌倉殿御教書を下されけり。「但馬国の住人朝倉太郎大夫高清、平家の侍越中次郎兵衛盛嗣当国に居住の由聞こし召す。召し進ぜよ」と仰せ下さる。氣比四郎は朝倉大夫が婿なりければ、呼び寄せて、「いかかしてからめめんずる」と儀するに、「湯屋にてからむべし」とて、湯に入れて、したたかなる者五六人おろし合はせてからめんとするに、取つつけば投げ倒され、起き上がれば蹴倒さる。互ひに身は濡れたり、取りもためず。されども衆力に強力かなはぬ事なれば、二三十人ばつと寄つて、太刀の峰長刀の柄で打ちなやしてからめ取り、やがて関東へ参らせたりければ、御前に引つ拵えさせて、事の子細を召し問はる。「いかに汝は同じ平家の侍といひながら、故親にてあんなるに死なざりけるぞ」。「それは余りに平家の脆く滅びてましまし候ふ間、もしやと狙ひ参らせ候ひつるなり。太刀のみのよきをも、征矢の尻の鉄よきをも、鎌倉殿の御ためとこそ拵へ持つて候ひつれども、これほど運命尽き果て候ひぬる上は、とかう申すに及び候はず」。「志のほどはゆゆしかりけり。頼朝をたのまば助けて使はんは、いかに」「勇士二主に仕へず。盛嗣ほどの者に御心許し給ひては、必ず御後悔候ふべし。ただ御恩にはとくとく首を召され候へ」と申しければ、さらば斬れとて、由井の浜に引き出だいて斬つてんげり。ほめぬ者こそなかりけれ。」富倉徳次郎 校『平家物語全注釈 下巻』(角川書店, 1966) pp.3207・3208

18) 다이라 모리쓰구(平盛嗣, 생년미상~1194年)는 헤이안 말기 헤이케 무장으로 『헤이케 모노가타리』에서는 「옛추노지로료에노조 모리쓰기(越中次郎兵衛盛嗣)」라 불린다. 미나모토 씨(源氏)와의 여러 전투에 참전하고, 야시마 전투(屋島の戦い)에서는 미나모토노 요시쓰네(源義経)의 가신(郎党)인 이세 요시모리(伊勢義盛)와의 일화가 남아있다. 모리쓰기는 『하쿠니쥬쿠 혼(百二十本) 헤이케 모노가타리』에서는 모리쓰구(盛嗣), 『가쿠이치 본(覚一本) 헤이케 모노가타리』에서는 「盛継」, 「盛嗣」, 「盛次」로 표기되며, 읽는 방법도 「모리쓰기」와 「모리쓰구」로 읽힌다. 『후후 본(流布本) 헤이케 모노가타리』는 「모리쓰기(もりつき)」로 읽히며, 『아즈마 가가미』에서는 「盛継」, 「盛次」로 표기되어 있다. 安田元久 編『鎌倉・室町人名事典』(新人物往来社, 2004) p.364, 佐藤和彦, 樋口州男, 錦昭江, 松井吉昭, 桜井彦, 鈴木彰 編『日本中世内乱史人名事典(上巻)』(新人物往来社, 2007) p.129

로(氣比道弘, 이하 ‘미치히로’)¹⁹⁾의 계약으로 붙잡히게 된다. 붙잡힌 모리쓰기는 요리토모와 대면하게 되고 미나모토 가문의 무사로 있어주기를 권유하는 요리토모 앞에서 다이라 가문의 무사로서 당당히 죽음을 택하게 된다.

요리토모가 모리쓰기에게 미나모토 가문의 무사로 있기를 제안하고, 이 제안을 거절한 모리쓰기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이 부분은 가게키요모노(景清物)²⁰⁾ 중 고와카마이교쿠(幸若舞曲), 『가게키요』, 고조루리(古浄瑠璃) 『가게키요(かげきよ)』, 신조루리(新浄瑠璃) 지카마쓰 문자에몬(近松門左衛門) 『출세 가게키요(出世景清)』 등에서 극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 가게키요를 극적인 인물로 만드는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쿠이치 본 『헤이케 모노가타리』에서 측근의 배신 일화의 중심에 모리쓰기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쿠이치 본 『헤이케 모노가타리』에서만 밀고에 의해서 붙잡혀 참형을 당하는 인물이 모리쓰기라고 한다면 호시노 다카유키²¹⁾가 주장한 것과 같이 모리쓰기와 가게키요가 혼동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가쿠이치 본 외에도 다른 『헤이케 모노가타리』 전본에서 「측근의 배신」 일화를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난 후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

계속해서, 가타리혼 계의 다른 한 줄기인 야사카 류(八坂流)인 야사카 본(八坂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야사카 본은 12권 「훗쇼지 전투(法性寺合戦)」에 헤이케 잔당 후일담인 측근의 배신 일화를 담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옛추노지로보에 모리쓰기는 다지마 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게히노 곤노가미의 사위가 되어 살았다. 다지마의 슈고(守護)인 아다치노 산로자에몬 도모토가 이를 듣고 많은 사람들을 몰고 갔다. 모리쓰기는 이들을 맞아 홀로 싸웠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윽고 게히노 곤노가미와 모리쓰기는 붙잡혀 가마쿠라로 보내졌다. (중략) 그 후 모리쓰기는 가마쿠라 전하(요리토모) 앞에 붙잡혀 심문을 받았다. “그런데, 너는 어찌 붙잡히지 않았느냐?” 하니 모리쓰기가 말하기를 “네 목숨을 노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이렇게 운이 다하여 붙잡히고 말았으니 아무 쓸모가 없소. 하니

19) ‘氣比道弘 生没年未詳 但馬国城の崎郡氣比庄(兵庫県豊岡市)の住人。氣比權守道弘(道広)と記される。氣比は津井山湾に面した要地であり、氣比氏は水軍と考えてよいであろう。越中二郎兵衛盛嗣を匿って娘婿とするが、盛嗣が京都にいたなじみの女性に所在を漏らしたことから、建久五年(一一九四)にこの事が露見した。源頼朝から盛嗣の捕縛を命じられた道弘は、娘婿の朝倉高清を領地に派遣し、盛嗣を源頼朝の基に送り届けた。’ 福田豊彦, 関幸彦 編 『源平合戦事典』 (吉川弘文館, 2006) p.71

20) 가게키요를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을 가게키요모노(景清物)라 하며, 노(能) 『가게키요』 『다이부쓰쿠요(大仏供養)』 『로가게키요(籠景清)』, 고와카마이교쿠(幸若舞曲), 『가게키요』, 고조루리(古浄瑠璃) 『가게키요(かげきよ)』, 신조루리(新浄瑠璃) 지카마쓰 문자에몬(近松門左衛門) 『출세 가게키요(出世景清)』 등이 여기에 속한다.

21) 본고 각주 4번 참고

은혜를 베풀어 어서 목을 치시오”라고 말하니”라고 하였다. 그리고나서 유이노하마로 끌고 가서 목을 베었다.²²⁾

내용을 보면 가쿠이치 본의 중심 내용인 모리쓰기가 다지마 국 게히노 곤노가미의 사위가 되어 살았으며, 이후 다지마 국의 슈고(守護)인 아다치노 산로자에몬 도모토에게 붙잡혀 가마쿠라로 보내졌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가쿠이치 본과 일치한다. 하지만, 야사카 본은 같은 가타리 혼계인 가쿠이치 본 및 요네자와 본과 다르게 모리쓰기를 배신했던 장인 게히노 곤노가미가 모리쓰기와 함께 죄인의 신분으로 가마쿠라로 보내진다. 이처럼 게히노 곤노가미가 모리쓰기와 함께 죄인의 입장이 되는 것은 『헤이케 모노가타리』 전본 중 야사카 본이 유일하다²³⁾.

다음은 야사카 류 다른 전본인 하쿠니주쿠 본(百二十句本)에 관한 것이다. 하쿠니주쿠 본(百二十句本) 12권 「제120구 단절 헤이케(斷絶平家)²⁴⁾」를 보면, 측근의 배신에 의한 헤이케 잔당의 후일담 내용이 있다. 우선, 내용에 있어서 모리쓰기가 다지마 국에서 출발하여 가마쿠라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죽은 상태였으며, 다른 전본과 다르게 모리쓰기가 가마쿠라로 온 시기도 명확하게 1197년(겐큐 8) 11월7일로 적고 있다. 하지만, 모리쓰기가 은신처로 삼은 다지마 국이라는 장소는 다른 가타리혼 계와 일치하고 있다. 하쿠니주쿠 본은 모리쓰기의 암살 시도 및 암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모리쓰기의 행적은 기술하고 있지는 않은 유일한 가타리혼 계 전본이다.

22) 즐자 역 ‘魚つちうのじらうびやう魚もりつきは・たじまに・くだり・けひのごんのかみが・むこに・なつてぞ・みたりける・たじまのしゆご・あだちの三らうぎ魚もんとほもと・このよしをきいて・たいぜいにて・おしよせたり・じらうびやう魚も・一ばうけとつて・たたかひけるが・いかがはしたりけん・たいぜいのなかに・とりこめられて・いけどりにこそ・せられけれ・や가て・けひのごんのかみをも・じらうびやう魚に・そへて・かまくらへこそ・くだしけれ・(中略)・そのち・魚つちうのじらうびやう魚を・おつほのうちに・めしいだし・かまくらの・など・なんちほどのもの・いたづらに・いけどられぬるぞと・のたまへば・さんさふらふ・いかにもして・みを・まつたうし・きみを・うちたてまつらんと・ねらひまをさきふらひしに・いまは・うんつきて・いたづらに・いけどられ・さふらひぬるうへは・ちからおよびさふらはず・ただごおんには・いそぎかうべを・はねさせたまへと・まをしたりければ・さらばとて・ゆるのはまにてぞ・きられる.’ 古谷知新 校訂 『平家物語 附承久記』(国民文庫刊行会, 1911) pp.591・592

23) 모리쓰기의 장인인 게히노곤노 가미가 야사카 본 『헤이케 모노가타리』에서만 배신자로 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본 고 주제인 가게키요가 헤이케 잔당 집약체로서 상정된 이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논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만, 게히노 곤노가미가 왜 모리쓰기와 함께 죄인의 신분으로 가마쿠라로 보내졌는지에 대한 상황을 야사카 본에 적힌 내용만을 갖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신조루리 『출세 가게키요』에서는 장인인 다이구지(大宮司)가 가게키요에 대해서 토설을 하지 않아 옥사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것에 소재를 제공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4) ‘建久八年十一月七日、但馬の国の住人、比氣の権守、越中次郎兵衛が首持ちて鎌倉へ参りたり。是年来盛嗣とも知らずして、権守を頼みて仕はれける程に、躰骨柄、立居振舞、ことにふれ抜群に見えける間、哀是は下臘と覚えぬもの哉と思ひ、是をあやしめ尋ね聞く程に、盛嗣にて有りけるなれば、討ちたりけるとかや.’ 高橋貞一校訂 『百二十句本 平家物語』(思文閣, 1973) p.646

이상과 같이 측근의 배신 일화를 기술하고 있는 『헤이케 모노가타리』 「당도계 전본」인 가타리혼 계를 살펴본 결과, 하쿠니주쿠 본을 제외한 가쿠이치 본, 요네자와 본, 야사카 본은 배신당하는 인물, 배신자, 모리쓰기가 몸을 피한 장소, 그리고 요리토모의 사면, 모리쓰기의 참형장소 등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타리혼 계 『헤이케 모노가타리』에서 측근의 배신 일화는 일정한 흐름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요미혼 계 『헤이케 모노가타리』에서도 일정한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3. 요미혼 계 『헤이케 모노가타리』를 중심으로

『헤이케 모노가타리』 「비당도계 전본」인 요미혼 계에서는 헤이케 잔당의 후일담인 측근의 배신 일화를 엔교 본(延慶本)²⁵과 나가토 본(長門本)²⁶ 등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엔교 본(延慶本) 제 6권 말(第六末) 「옛추지로보에 모리쓰기 주살된 일(越中次郎兵衛盛次被誅事)」을 보면, 모리쓰기가 측근의 배신에 의해서 모리쓰기가 붙잡히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다이랴 가문의 무사 옛추노 지로보에 모리쓰기는 교토에서는 안심할 수 없어, 다지마 국(但馬国)으로 도망가서 게히곤노가미 미치히로(氣比權守道弘, 이하 ‘미치히로’)의 허락 하에 숨어살게 되었다. 하지만, 미치히로는 다이랴 가문의 옛추노 지로보에 모리쓰기를 알지 못했다. 미치히로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모리쓰기와 몰래 정을 통하였다. 이 몰래 정을 통한다고 하지만, 자루 속의 송곳과 같은 것이어서 관계가 들통 나게 되었다. 모리쓰기는 몰래 교토로 가서 알고 있었던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여인이 “그런데 어느 곳에 계시는지요? 제게 정이 있으시긴 한 건가요?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의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모리쓰기 정답게 말하는데 “나는 다지마 국 게히 미치히로라고 하는 자의 허락 하에 있다. 미안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밝히지 말거라”라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 가마쿠라 전하(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다이랴 가문의 무사 옛추노 지로보에 모리쓰기를 붙잡거나 죽이는 자에게는 보상할 것이다”라는 교서(敎書)를 내렸다. (교토)에 사는 여인은 모리쓰기가 아

25) 「엔교본(延慶本)」에서 「엔교(延慶)」는 1303~08년 경의 연호(年号)이며, 「えんきょう」「えんけい」라고 읽는다. 현존하는 『헤이케 모노가타리』 저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로 인정하며, 오쿠가키(奥書)에 1309~10년(延慶2, 3年)으로 기록하고 있다.

26) 안토쿠 천황(安徳天皇)의 위패가 있는 야마구치 현 아미다 절(阿彌陀寺)에 전하는 책으로, 서사(書寫) 연대는 불분명하다. 총 20권이며, 내용상 엔교 본과 거의 비슷하지만, 연구자에 따라 나가토 본을 「원 엔교본(原延慶本)」이라 보기도 한다.

닌 다른 이와 정을 통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한밤중에 깨어서는 “모리쓰기를 붙잡거나 죽이는 자에게 보상이 있다고 하니, 가마쿠라 전하에게 고하자. 안쓰럽지만, 어딘가에 있을 것이니 붙잡아 보상을 받자”라고 하자 사람의 마음은 참 무정한 것이어서 마음이야 변할 수 있는 것이니, 이 여인이 말하길 “나는 알고 있어요.”라고 하자, 남자는 크게 기뻐하며, 여러 가지 답례품을 주니, 잘난 체하며 여인은 있는 그대로 말하였다. 즉시 가마쿠라 전하에게 이 이야기를 말 씀드리니, 가마쿠라 전하는 미치히로에게 모리쓰기를 붙잡아 들이라 명하였다. 때는 1197년(겐큐 8), 미치히로는 교토를 지키기 위해서 있었는데, 미치히로는 자신이 모리쓰기를 잡을 수 없었기에 사위인 아사쿠라 다유에게 잡아들이라 했다. 붙잡힌 모리쓰기는 “이제 운이 다해서 이렇게 잡히는 것이니 힘을 낼 수 없을 것이다. 어서 죽이시오.”라고 한다. 니이 전하는 붙잡힌 모리쓰기를 보며 “안쓰럽구나. 이들을 도와주고 싶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헤이케 무사는 한 둘이 아니니, 호랑이를 키우는 것이다.”라고 하고는 결국 모리쓰기를 죽여 버렸다.²⁷⁾

다만, 가타리혼 계에서는 가마쿠라 막부에게 모리쓰기에 대한 정보가 전해지는 과정이 생략되고, 다지마 국 미치히로에게 가마쿠라 막부 교서가 내려지고 붙잡히게 된다. 하지만, 요미혼 계에서는 교토(京都)에서 살고 있는 모리쓰기의 정인(情人)인 여인²⁸⁾의 밀고에 의해서 모리쓰기의 행적이 밝혀지고 가마쿠라 막부에서 교서가 내려지는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엔교 본에서 처음 등장하는 모리쓰기의 정인인 여인의 등장이다. 이 여인은 이름조차 없는 ‘교토에 살고 있는 여인’으로 모리쓰기와 깊은 관계에 있지만,

27) 줄자 역 ‘廿九 越中次郎兵衛盛次ハ、都ニモ不安堵シテ、但馬国ニ落行テ、氣比權守道弘ガ許ニ隠居タリケリ、人是ヲ不知。道弘ガ娘ノ有ケルニ、盛次、忍テ通ケリ。サレドモ、針袋ヲ(ヲ)ス風情ニテ、隠ナカリケリ。盛次、忍テ京へ上テ、年来知りタリケル女ノ許へゾ通ケリ。或夜、彼女、「サテモイツクニオワスルゾ。カヤウニ情ヲカケ給へバ、露オロカノ儀ナシ」ト、ネムゴロニ云ケレバ、「我ハ但馬国氣比權守道弘ト云者ガ許ニ有也。穴賢人ニ披露スナ」トゾ語リケル。サル程ニ、鎌倉殿ヨリ、「越中次郎兵衛盛次、搦テモ誅テモ進セタラム者ニハ、勸賞有ベシ」ト披露有ケリ。彼女ニハ又年来ノ寢夫アリケリ。此夫、有夜ノネザメニ、「盛次ヲ搦テモ誅テモ進セタラム者ニハ、勸賞行ワルベキヨシ、鎌倉殿ヨリ披露アリ。哀、イツクニカ有ラム。搦テ勸賞ヲ蒙バヤ」ト云ケレバ、人ノ心ノウタテサハ、マ男ニヤ移リケム、此女、「ワラワコノ知タレ」ト申ケレバ、男悅テ、様々ノ引出物ヲシテ、スカシ問ケレバ、女、有ノママニ語リタリケリ。即、鎌倉殿ニ此由ヲ申タリケレバ、ヤガテ道弘ニ仰テ、搦め献ルベキヨシ被仰。折節、建久八年比、道弘、大番ノ為ニ在京シテ有ケルガ、我身ハ不下シテ、道弘ガ姉、朝倉大夫、持テ候シガ、「今ハ運ツキテ、カヤウニ搦メ召レ候上ハ、力及候ハズ。トクトク首ヲメセ」トゾ申ケル。二位殿、打ウナヅキ、哀、是等ヲ助置テ召仕バヤト思給ケレドモ、平家ノ侍ノ中ニハ一ノ者也、虎ヲ養フ愁有トテ、終ニ盛次ハ伐レニケリ。’麻原美子 外編 『平家物語長門本延慶本対照本文』(勉誠出版, 2011) pp.1491・1492

28) 정인을 밀고하는 여인은 고와카마이 『가게키요』, 고조루리 『가게키요』에서는 아코오(あこお)로, 그리고 신조루리 『출세 가게키요』에서는 아코야(阿古屋)로 등장하여 가게키요를 밀고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모리쓰기가 아닌 다른 남자와도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헤이케 무사였던 모리쓰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내연의 관계인 남자는 여인에게 가마쿠라 막부에 모리쓰기에 대해서 밀고하도록 한다. 결국, 여인은 남자의 적극적인 권유와 물욕(物慾)으로 인해 남자에게 모리쓰기에 관해서 말하게 되고, 정보를 전해들은 남자는 가마쿠라 막부에 가서 모리쓰기를 밀고한다.

엔교 본에서 처음 등장하는 교토에 사는 여인과 내연의 관계인 남자는 가타리 혼계에서는 보이지 않던 인물이다. 그렇다면, 교토에 사는 여인과 남자의 등장은 엔교 본만이 갖는 특징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같은 요미혼 계인 나가토 본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측근의 배신 일화 내용은 나가토 본 20권 「옛추지로보에 모리쓰기에 관한 일(越中次郎兵衛盛次事)」에 있는데, 다음과 같다.

다이랴 가문의 무사 옛추노 지로보에 모리쓰기는 교토에서는 안심할 수 없어, 다지마 국(但馬国)으로 도망가서 게히곤노가미 미치히로(氣比權守道弘, 이하 ‘미치히로’)의 허락 하에 숨어살게 되었다. 하지만, 미치히로는 다이랴 가문의 옛추노 지로보에 모리쓰기를 알지 못했다. 미치히로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모리쓰기와 몰래 정을 통하였다. 이 몰래 정을 통한다고 하지만, 자루 속의 송곳과 같은 것이어서 관계가 들통 나게 되었다. 모리쓰기는 몰래 교토로 가서 알고 있었던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여인이 “그런데 어느 곳에 계시는지요? 제게 정이 있으시긴 한 건가요?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의(義)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모리쓰기 정답게 말하는데 “나는 다지마 국 게히 미치히로라고 하는 자의 허락 하에 있다. 미안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밝히지 말거라”라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 가마쿠라 전하(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다이랴 가문의 무사 옛추노 지로보에 모리쓰기를 붙잡거나 죽이는 자에게는 보상할 것이다”라는 교서(敎書)를 내렸다. (교토)에 사는 여인은 모리쓰기가 아닌 다른 이와 정을 통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한밤중에 깨어서는 “모리쓰기를 붙잡거나 죽이는 자에게 보상이 있다고 하니, 가마쿠라 전하에게 고하자. 안쓰럽지만, 어딘가에 있을 것이니 붙잡아 보상을 받자”라고 하자 사람의 마음은 참 무정한 것이어서 마음이야 변할 수 있는 것이니, 이 여인이 말하길 “나는 알고 있어요.”라고 하자, 남자는 크게 기뻐하며, 여러 가지 답례품을 주며 잘난 체하며 말하는 여인은 있는 그대로 말하였다. 즉시 가마쿠라 전하에게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니, 가마쿠라 전하는 미치히로에게 모리쓰기를 잡아들이라고 명하였다. 때는 1197년(겐큐 8), 미치히로는 교토를 지키기 위해서 있었는데, 미치히로는 자신이 모리쓰기를 잡을 수 없었기에 사위인 아사쿠라 다유에게 잡아들이라 했다. 붙잡힌 모리쓰기는 “이제 운이 다해서 이렇게 잡히는 것이니 힘을 낼 수 없을 것이다. 어서 죽이시오.”라고 한다. 나이 전하는 붙잡힌 모리쓰기를 보며 “안쓰럽구나. 이들을 도와주고 싶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헤이케 무사는 한 둘이 아니니, 호랑이를 키우는 것이다.”라고 하고, 결국 모리쓰기를 죽여 버렸다.²⁹⁾

내용을 살펴보면, 나가토 본은 가타리혼 계와 같이 모리쓰기가 다지마 국에서 몸을 숨기고 후일을 도모하지만, 가마쿠라 막부에서 교서가 내려지고 장인인 미치히로가 모리쓰기를 붙잡는 과정과 엔교 본에서 여인의 배신으로 인해 모리쓰기의 행방이 알려지고 붙잡히는 내용이 통합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엔교 본과 나가토 본의 공통점은 첫째, 모리쓰기의 장인으로 기술된 미치히로의 표기이다. 게이호곤노가미 미치히로(氣比權守道弘)라는 한자표기는 엔교 본과 나가토 본에서만 보이는 특징이며, 두 전본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모리쓰기를 배신하는 측근의 인물 중, 모리쓰기의 정인(情人)인 여인이 등장하며, 이 여인은 모리쓰기 외에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었다. 셋째, 모리쓰기를 밀고하는 인물인 모리쓰기의 여인은 금전적인 이유로 모리쓰기를 밀고한다. 넷째, 모리쓰기의 정인인 여인이 밀고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인물로 여인과 정을 통하는 남자가 등장하고 있다.

29) 줄자 역 ‘越中の次郎兵衛盛次は、都にも安堵しがたくて、但馬国に落行て、氣比の權守道広がもとに隠れ居たりけり、人これを知らず、始めは厩につかはれて馬をぞ飼ける、馬をもよく飼けり、馬洗に出つ、馬に乗てはせたり、あがかせたり、物射るまねしたりなどしけり、後には、道広が娘のありける方へ遣して、今参のよつかはるぞ、とのゝなどさせよとてつかはしける、次第にありつる程に、如何したりけん、彼娘に近付て、よなよな忍びかよひけり、鎌倉殿より越中次郎兵衛盛次にてありと知てけり、盛次忍び度々京へ上りて、年比しりたりける女のもとへぞかよひける、或夜彼女、さてもいくつにおはするぞ、か様に昔のよみを忘れ給はで、情をかけ給へば、露おろかに思ひ奉らずと、ねんごろに申ければ、我は但馬国氣比の權守道広といふもの許にあり、あなかしこ、人に披露すなどぞ語りける、鎌倉殿より越中次郎兵衛盛次を、からめても打てもまいらせたらん者には、勸賞を行はるべき由、鎌倉殿より披露あり、いづくにか隠居たらん、からめて勸賞を蒙らばやとぞ申ける、盛次がさばかり披露すなど、打とけて語りたるに、女のうたてきは、わらはこそ次郎兵衛がかり所は知りたれと申たりければ、男悦て女によくよく尋とひて、鎌倉殿に此由を申す、頓て氣比の權守道広に仰て、からめてまいらすべきよし、建久五年の比仰られにけり、道広境節大番にて在京したりけり、我身は下らず、妹智朝倉大夫高清ならびに家人等に、越中次郎兵衛盛次をからめて参らせよ、相構へて逃すなどぞ申たりけり、たやすくも討べくもなかりければ、温室にてからむべしとて、温室におろして、したたか者七八人用意したり、盛次温室におりけるに、腰刀に帯をまきて、温室のうちのなげしにぞ置ける、これ用心のためなり、盛次温室におりたり、此七八人の者からめんとす、盛次さしたるとて、おのれらには一度もからめらるまじぞといひて、温室の内を走出たり、にげも隠れもしつるものならば、權守が大事になるべし、又からめられずしてあらば、おぼつかなくも恐しくも、汝等おもはんずれば、まくし繩にてはしばらるまじと云て、帯を以て心としばられけり、氣比權守、盛次を鎌倉殿へ参らせたければ、盛次を召出て、いかに汝は平家の侍ながら、平家の一門にてあんなるに、西海の浪の上にて、平家の人々と一所にて、打死をもなどせざりけるぞと仰られければ、平家の君達、させるし出したる事もなくて亡び給ひぬ、よき主をも執候かとてこそ、残り留て候へとぞ申ける、抑汝は、九郎につかはれるなど仰られければ、さる事候き、若や伺奉り候とて、近付奉り候しかども、判官殿意得たりげにて、心ゆるしも候はず、よるは御ふしども、人しられずしておはし候しかば、恐しくおのづから走向には、見参に入こも候しかども、御目をはたと見合せて、おはし候しかば、少しも透問候はで、組参らせんと思ふ心も候はず、都を落させ給て後は、御心を置せ給はねばこそ候しか、其後は腰刀のかねよきも、征矢の尻のかねよき候も、鎌倉殿の御ためとこそをしみ持て候つれども、今は運尽て、かく召とられ候ぬる上は、力及ばずとこそ申ける、鎌倉殿打なづきて、是等生てめしつかはばやとおはしめしけれども、平家の侍の中には、これら一二のものなり、虎をやしなふうれひありとて、終に盛次さられにけり、大名小名惜まぬ人もなかりけり、’黒川真道 校註『長門本 平家物語』(国書刊行会, 1906) pp.742~744

이처럼 엔교 본과 나가토 본은 공통점을 지니고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엔교 본은 모리쓰기가 요리토모를 만나는 장면과 참형되는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 반면, 나가토 본은 가타리혼 계와 같이 배신당하는 인물, 배신자, 모리쓰기가 몸을 피한 장소, 그리고 요리토모의 사면, 모리쓰기의 참형장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둘째, 엔교 본에는 생략된 가타리혼 계 중 가쿠이치 본과 요네자와 본 내용을 나가토 본에서는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측근의 배신 일화를 기술하고 있는 『헤이케 모노가타리』 「비당도계 전본」인 요미혼 계 중 엔교 본과 나가토 본은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가타리 혼계와 마찬가지로 요미혼 계 『헤이케 모노가타리』에서도 측근의 배신 일화는 일정한 흐름을 갖고 있었다. 또한 가타리혼 계와 요미혼 계라는 것과 관계없이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 일정한 흐름을 지니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다음은 구체적으로 가타리혼 계와 나가토 본의 공통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미치히로가 모리쓰기를 잡기 위해 작당하는 부분, 둘째, 모리쓰기가 미치히로와 그 가신들에 의해서 잡히는 부분, 셋째, 모리쓰기가 참형되는 장소 등이 일치한다. 살펴 본 바와 같이 모리쓰기 측근 배신 일화에 있어서 나가토 본은 엔교 본과 가타리혼 계의 내용을 통합하고 있다.

이처럼 측근의 배신 일화를 기술하고 있는 『헤이케 모노가타리』 「비당도계 전본」인 요미혼 계는 가타리혼 계에서 생략된 부분을 기술하면서도 내용상의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헤이케 모노가타리』에 기술된 모리쓰기를 가계키요로 혼동할 가능성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헤이케 잔당 후일담 중 측근의 배신 일화를 기술하고 있는 『헤이케 모노가타리』 전본에서 측근의 배신으로 붙잡힌 인물은 일관되게 모리쓰기를 지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배신하는 인물, 몸을 피하는 장소 등 여러 항목에서 일치함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헤이케 모노가타리』에서 기술하고 있는 측근 배신 일화

	배신당하는 인물	배신자 및 체포하는 인물	몸을 피한 장소	요리토모 사면	참형 장소
엔교본 (延慶本)	옛추노지로보에 모리쓰기 (越中次郎兵衛盛嗣), 계히 미치히로(氣比道弘)	교도에 사는 여인 (京への女)	다지마 국 (但馬國)		
나가토본 (長門本)	옛추노지로보에 모리쓰기 (越中次郎兵衛盛嗣)	계히 미치히로 (氣比道弘), 교도에 사는 여인 (京への女)	다지마 국 (但馬國)		유이노하마 (由井の浜)

가쿠이치 본 (覚一本)	옛추노지로보에 모리쓰기 (越中次郎兵衛盛次)	게히 미치히로 (氣比道弘)	다지마 국 (但馬国)	사면	유이노하마 (由井の浜)
야사카본 (八坂本)	옛추노지로보에 모리쓰기 (越つちうの二らうびやうゑもりつぎ), 게히 미치히로(氣比道弘)	아다치노 산로자에몬 도모토 (たじまのしゆご・あだちの 三らうぎゑもんとほもと)	다지마 국 (但馬国)	사면	유이노하마 (由井の浜)
요네자와 본(米沢本)	옛추노지로보에 모리쓰기 (越中次郎兵衛盛嗣)	게히 미치히로 (氣比道弘)	다지마 국 (但馬国)	사면	유이노하마 (由井の浜)
하쿠니주쿠 본(百二十句本)	옛추노지로보에 모리쓰기 (越つちうの二らうびやうゑもりつぎ)				

* 위 표는 출처에 의함

살펴본 바와 같이, 『헤이케 모노가타리』 전본에서 「측근의 배신」 일화는 배신당하는 인물, 배신자, 몸을 피한 장소, 요리토모 사면, 참형 장소 등 여러 면에서 일치함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헤이케 모노가타리』에 등장하는 헤이케 잔당 이야기가 가게키요로 혼동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헤이케 모노가타리』에서 가게키요가 모리쓰기보다 더 높은 신분의 위치였거나 『헤이케 모노가타리』에서 더 많이 등장했다면, 가게키요가 헤이케 잔당 집약인물이 될 수 있었던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리쓰기는 헤이케 잔당의 후일담인 「측근의 배신」 일화에서 기술되기 이전 『헤이케 모노가타리』에서 어떻게 기술되고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즐고 「가게키요에 대한 일고찰- 『헤이케 모노가타리』를 중심으로-30)」을 통해서 가타리혼 계와 요미혼 계 『헤이케 모노가타리』를 분류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가게키요와 모리쓰기는 신분에 있어서도 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이 우위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때문에, 『헤이케 모노가타리』 전본에서 「측근의 배신」 일화의 중심에 있는 모리쓰기를 어떠한 이유를 갖고 가게키요로 바꾸어 헤이케 잔당의 집약 인물로 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가마쿠라·무로마치 시대 서적에서 「측근의 배신」 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4. 『아즈마 가가미』를 중심으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헤이케 모노가타리』 전본에서 측근의 배신으로

30) 즐고 「가게키요에 대한 일고찰- 『헤이케 모노가타리』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 30집』 (중앙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1.2) pp.235~237

요리토모에게 잡히는 무사는 모리쓰기로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측근의 배신 일화가 『헤이케 모노가타리』에서만 모리쓰기로 일치하는 것일까? 이를 위해 측근의 배신에 의해서 붙잡힌 모리쓰기를 중심으로 중세 서적에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범위는 모리쓰기에 관한 생물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즈마 가가미』 12권에서 모리쓰기 후일담 기술을 하고 있는 1192년부터 가타리 혼계 야사카 류인 하쿠니주쿠 분(百二十句本) 『헤이케 모노가타리』 12권과 요미혼 계인 엔고 본 『헤이케 모노가타리』 6권에서 헤이케 잔당 후일담 중 모리쓰기가 죽었다고 하는 1197년까지로 정하고, 이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일기와 역사서를 중심으로 조사해 보았다. 그 중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 가신(家臣)에 의해서 편찬(編纂)된 역사서인 『아즈마 가가미』에서만 모리쓰기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헤이케 모노가타리』에서 측근의 배신 일화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모리쓰기의 후일담은 『아즈마 가가미』 12권 1192년(建久三) 1월 24일자에서 볼 수 있다. 내용을 보면, 가즈사고로보에 다다미쓰(上總五郎兵衛忠光, 이하 ‘다다미쓰’)³¹⁾가 참형을 당하기 전, 미나모토 군이 다다미쓰에게 같은 다이라 씨(平氏) 무사들의 행방에 대해서 심문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사시 국(武蔵国) 해변에서 죄인 가즈사고로보에조 다이라노 다다미쓰(平忠光)는 효수되었다. 와다 요시모리(和田義盛)가 명을 받들어 집행했다. 다이라노 다다미쓰는 효수되기 며칠 전부터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심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 이상 다른 헤이케 무사들은 없습니다. 다만, 옛추노지로보에 모리쓰기(越中次郎兵衛盛繼)는 작년 즈음 다지마 국에 숨어있었습니다. 그도 나와 같이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한 곳에 오래 머물지는 않는 듯합니다.”라고 했다.³²⁾

살펴 본 바와 같이, 모리쓰기가 다지마 국에 숨어서 후일을 도모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헤이케 모노가타리』 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다만, 다다미쓰의 이러한 언급이 밀고인지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미나모토 군에

31) 다이라노 다다미치(平忠光)는 헤이안 중기 무사이며, 다이라노 요시부미(平良文)의 아들이다. 헤이안 말기(平安時代末期)에 성립된 『니쥬레키(二中歴)』에 의하면 다이라노 다다요리(平忠頼, 930~1019년)의 형제라고 한다.

32) ‘建久三年(1192)二月小廿四日丁卯。於武蔵国六連海邊。囚人上總五郎兵衛尉忠光梟首。義盛奉之。日来断漿水云々。推問之間。申云。更無同類。但越中次郎兵衛尉盛繼。去年之比隱居丹波国。彼同存会稽之志歟。於當時者難知在所。曾不定一所云々。’ 黑板勝美 編『吾妻鏡(国史大系第32卷)』(林讓, 1932) p.460

게 모리쓰기의 행방을 알리는 정보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외에도 헤이케 멸망 후 기록된 모리쓰기에 관한 후일담은 『아즈마 가가미』 13권 1193년(建久四) 3월 16일자에서도 볼 수 있는데, 모리쓰기를 잡아들이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다.

헤이케 잔당인 옛추노지로보에 모리쓰기를 비롯한 무사들이 교토 근처에서 숨어있다고 하는 소문이 흘러 들어왔다. 서둘러 잔당들을 잡아오라고 고토 모토키요(後藤基清)에게 명하였다.³³⁾

『아즈마 가가미』의 내용과 가타리혼 계와 요미혼 계 『헤이케 모노가타리』와 내용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문이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밀고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즈마 가가미』와 『헤이케 모노가타리』의 내용이나 서술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미혼 계 중 엔교 본과 나가토 본 『헤이케 모노가타리』에서 모리쓰기의 정인인 여인이 교토 근처에 있었고, 그 여인의 밀고로 모리쓰기가 붙잡히게 된 것과 앞뒤가 들어맞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황상 일치하는 것 외에도 『아즈마 가가미』에서 모리쓰기를 잡으라는 요리토모의 교서가 내려졌다고 하는 부분은 『헤이케 모노가타리³⁴⁾』 후일담과도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를 보았을 때, 이 시기 미나모토 군에게 토벌해야 할 헤이케 잔당의 대표 인물은 가게키요가 아닌 모리쓰기가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살펴 본 바와 같이, 모리쓰기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가마쿠라·무로마치 서적은 『아즈마 가가미』 뿐이며, 헤이케 잔당의 후일담으로 그려진 모리쓰기의 행적은 두 건뿐이다. 하지만, 『아즈마 가가미』에서도 이미 살펴본 『헤이케 모노가타리』에서와 같이 모리쓰기가 몸을 숨긴 장소는 다지마 국으로 일치하고 있으며, 모리쓰기가 교토에 연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아즈마 가가미』에 기록된 모리쓰기의 행적은 이미 살펴본 『헤이케 모노가타리』와 많은 점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즈마 가가미』에 가게키요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되어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줄고 「가게키요에 대한 일고찰(다이니치 노닌(大日能忍)과의 관계를 통해서)³⁵⁾」를 통해서 살펴 본 바 있다. 간단히 말하면, 가게키요에 대한 후일담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헤이케가 멸망하기 전의 기록으로 『아즈마

33) ‘建久四年(1193)三月小十六日癸未。平家与党越中二郎兵衛尉盛繼已下隱居近国之由有風聞。早可追討之由。被仰兵衛尉基清云々。’ 전게서(주32번) p.486

34) 『헤이케 모노가타리』 「당도계 전본」인 가타리혼 계 중 가쿠이치 본(覚一本) 12권, 요네자와 본(米沢本) 12권과 「비당도계 전본」인 요미혼 계 중 엔교 본(延慶本) 제 6권 말(第六末), 나가토 본(長門本) 20권에서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의 교서가 내려졌음을 기술하고 있다.

35) 줄고 「가게키요에 대한 일고찰(다이니치 노닌(大日能忍)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본어문학 제 48집』 (일본어문학회, 2011.3) pp.99~119

가가미』 전권을 통틀어 아쿠시지보에 가게키요라는 명칭으로 2번 등장하는데, 1184년(寿永三年) 2월 7일자와 단노우라 전투(壇浦の戦い)³⁶⁾가 있었던 해인 1185년 3월 2일자 기록이다. 이 중 1185년 3월 2일자를 보면 가게키요는 교토 조정의 공령(公領)으로 야마시로 국(山城国, 지금의 교토)의 정진회(精進会) 비용을 어렵게 모아 장원의 해마다 마치는 공물을 가로채려 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뿐이다³⁷⁾. 다시 말해서, 가게키요가 헤이케 잔당으로 남아있었는지 여부는 『아즈마 가가미』를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모리쓰기의 경우는 『아즈마 가가미』와 『헤이케 모노가타리』를 통해서, 그가 헤이케 멸망 후에 헤이케 잔당으로 미나모토 군에게 존재감이 있는 인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5. 결론

이상으로 가게키요 모노(景清物)에 소재를 제공한 『헤이케 모노가타리』 전본에서 보이는 측근의 배신 일화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선, 『헤이케 모노가타리』 각 전본을 가타리혼 계와 요미혼 계로 분류하고, 측근의 배신 일화를 살펴보았다. 부분적인 차이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가타리혼 계 『헤이케 모노가타리』와 요미혼 계 『헤이케 모노가타리』에서 배신당하는 인물은 모리쓰기로 일치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모리쓰기를 배신하는 자, 모리쓰기가 몸을 피한 장소, 요리토모가 모리쓰기를 사면하는지 여부, 모리쓰기 참형 장소 등에서도 거의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헤이케 모노가타리』에서 측근의 배신 일화의 일치점이라 할 수 있는 모리쓰기의 후일담을 기술하고 있는 가마쿠라 시대 역사서인 『아즈마 가가미』를 살펴보았다. 내용을 보면 『헤이케 모노가타리』 전본에서 기술된 배신당한 인물, 배신자, 요리토모의 사면여부, 참형 장소 등과 일치하는 부분은 없다. 하지만, 다다미쓰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모리쓰기가 몸을 숨긴 장소가 언급되는데 이 장소는 『헤이케 모노가타리』 각 전본에서 모리쓰기의 은신처였던 다지마 국으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헤이케 모노가타리』 각 전본과 각 작품의 성립시기와 장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측근의 배신 일화는 모리쓰기라는 인물로 일치를 보고 있으며, 내

36) 단노우라 전투(壇浦の戦い)는 헤이안 시대 말기 1185년 4월 25일에 나가토노쿠니 아카마가세키(赤間関) 단노우라(壇ノ浦, 지금의 야마구치 현 시모노세키 시)에서 벌어진 전투로 헤이케(平家)가 멸망에 이른 지쇼-주에이의 난(治承·寿永の乱)의 최후의 전투이다.

37) ‘元暦二年(1185)三月大二日乙酉。去夜飛脚者渋谷庄司重国之使也。去正月參州自周防国被渡豊後国之時。最前渡海。討種直之由申之。’今日。内蔵寮領山城国精進御菌事。止給人景清妨。可令刑部丞信親領掌之旨。武衛直令下知給云々。’ 国書刊行会 『吾妻鏡』(国書刊行会、1906) p.736

용에 있어서도 일정한 흐름을 갖고 있다. 때문에 『헤이케 모노가타리』 만을 통해서 모리쓰기를 가게키요로 혼동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헤이케 모노가타리』에 기술된 가게키요를 통해서 헤이케 잔당의 집약인물로 가게키요를 보려고 하는 시각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굳이 가게키요라는 인물을 헤이케 잔당의 집약 인물로 상정한 것은 가게키요와 모리쓰기라는 인물을 혼동에 의해서가 아닌 인위적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 과제로 삼고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参考文献】

(텍스트)

- 吉沢義則 校註(1935). (応永書写延慶本)平家物語. 東京: 改造社 pp.3652~3654
麻原美子 外編(2011). 平家物語長門本延慶本対照本文. 東京: 勉誠出版 pp.1491・1492
黒川真道 校註(1906). 長門本 平家物語. 東京: 国書刊行会 pp.742~744
黒板勝美 編(1932). 吾妻鏡(国史大系第32卷). 東京: 林譲 p.460, p.486
古谷知新 校訂(1910). 平家物語附承久記. 東京: 国民文庫刊行会 pp.591・592
佐々木八郎 校註(1963). 平家物語評講(上・下). 東京: 明治書院 pp.1575・1576
高橋貞一 校注(1973). 百二十句本 平家物語. 東京: 思文閣 p.646
富倉徳次郎 校(1966). 平家物語全注釈(下). 東京: 角川書店 pp.3207・3208

(논문)

- 줄고 「가게키요에 대한 일고찰- 『헤이케 모노가타리』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 30집』 (중앙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1.2) pp.233~252
줄고 「『헤이케 모노가타리』에 나타난 가게키요 관련 일화 고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암살 시도 일화를 중심으로-」 『일본학보 제 87집』 (한국일본학회, 2011.5) pp.181~194
줄고 「가게키요에 대한 일고찰(다이니치 노닌(大日能忍)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본어문학 제 48집』 (일본어문학회, 2011.3) pp.99~119
北川忠彦 「景清像の成立」 『軍記物論考』 (三弥井選書, 1989) pp.28~55
向井芳樹 「幸若舞曲『景清』の論」 『近松の方法』 (桜楓社, 1976) pp.195~216
徳江元正 「乞丐景清-幸若舞曲と題目立-」 『文学46卷』 (岩波書店, 1978.4) p.62~75
星野貴志 「景清論-平家物語諸本が形成する景清像の考察-」 『成城国文学18号』 (成城国文学会, 2002) pp.15~30
砂川博 「幸若舞曲景清の前段階-南部の景清語りの可能性-」 『幸若舞曲研究第三卷』 (三弥井書店, 1975) p.66~87
麻原美子 「舞の本『景清』考」 『幸若舞曲研究第九卷』 (三弥井書店, 1996) pp.3~30

要 旨

本稿で取り上げる「景清」は、『平家物語』で平家の侍の一人として登場するが、以後多くの作品で主人公として登場し、幸若舞曲『景清』においては、平家残党の集約体として登場している。これらは後に「景清物」と呼ばれ、日本全国に景清に関する伝説も残されている。このように、平家の一人の侍に始まり、後に平家残党の集約体を象徴する人物として登場するという、景清の描かれ方の変化が、なぜ生まれたのかという疑問は、景清に関する多くの研究を生み出した。これに関する日本での研究は、大きく二つの流れ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が、それは民俗学的方法を通じた景清の研究と『平家物語』に現れる景清の研究である。また、このような流れとは関係なく、中国の忠臣らの名前が論じられることもある。その中で『平家物語』を通じた研究中北川忠彦は覚一本『平家物語』に現れた一定の侍の羅列が景清が平家残党の集約人物として登場するためだと主張した。その他にも星野貴志は『平家物語』に登場する平家残党の話が景清と混同されることが多いが、これは固定化されなかった平家残党の話が景清につないたものと結論を結んでいる。だが、これら研究は『平家物語』伝本の中で「当道係」である語り物系だけを考察したり、「当道係」である語り物系と「非当道係」である読み本系で見えるエピソードが景清に混同された可能性を示唆して平家残党の集約人物で景清を相定して具体的に写実的な論証を避けている。これに本稿では『平家物語』だけを通じては景清を平家残党の集約体として想定するのは多少無理があると考えて、景清が平家残党の集約体に描かれている幸若舞曲『景清』に現れたエピソードらを通じてこれを証明しようとする。すなわち平家の復讐・源頼朝の暗殺試み、側近および情人の裏切り、牢破り、観音の身代り、源頼朝の赦免、景清の両眼抉り等に関する史料を考察する必要性があると考えた。このようなエピソードの中で「平家の復讐・源頼朝の暗殺試み」に関するエピソードに関しては拙稿を通じて『平家物語』だけを通じて景清を平家残党の集約体として見るのは多少無理があると記述した。このような流れの中で『平家物語』の景清と平家残党関連のエピソードである、側近および情人の裏切り、観音の身代りの中で「側近および情人の裏切り」についての史料を調査することで次のような結論を出すに至った。このように『平家物語』に現れる伝本の成立時期とジャンルが違いにもかかわらず、「側近および情人の裏切り」のエピソードは越中次郎兵衛尉盛嗣という人物で一致を見ていたし、一定の内容の流れも持っている。このような流れの中で記述された『平家物語』の伝本は部分的に差異点もあったが、盛嗣を景清で混同するほどの相違点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言い換えれば、『平家物語』と記述された景清を平家残党の集約体として想定することは無理があるというもう一つの反証といえる。また、景清を平家残党の集約人物で想定されたことは他の理由があるという証拠でもある。これについては次の研究課題として引き続き研究していくようにする。

キーワード：景清、覚一本、八坂本、延慶本、長門本、平家物語

투 고 : 2011. 8. 31
1차 심사 : 2011. 9. 10
2차 심사 : 2011. 10. 1

【필자인적사항】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행당 1동 320-5 (우편번호 : 133-071)

전화번호 : 02-2293-6231

H.P : 010-8765-5697

E-mail : mokim07@hanmail.net

한자 필자명: 金 美玉

영문 필자명: Mi-Ok Kim

영문 제목: One consideration on 「*Kagekiyo*」

발 표 일 : 2010년 7월 3일 <한국일본학연합회 제8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장소 : 남서울대학교

투 고 일 : 2011년 8월 31일